장단 맞춰 놀기와 놀아나기

(출23:20~33)

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장단 맞춰 놀기와 놀아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장단 맞춰 놀기와 놀아나기'
우리가 어제는 "선민의 행동원리, 부화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화뇌동은 우렛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한다는 뜻으로 우렛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에 천지만물이 그 소리와 함께 울리는 것처럼 느껴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화뇌동이라는 말을 자기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부화지동으로 쓰고 있지만, 부화뇌동의 우렛소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타서 함께 하는 것이 선민의 행동원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하다는 형편에 마음이 동해서 행동을 하든지, 가난하다는 것을 보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무시하든지, 어쨌든 이 지상의 상황에 마음이 동해서 움

직이고, 원수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면 원수가 밉다는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부화지동이고, 선민은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원수가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객관화된 하늘로부터 들리는 우렛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부화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연장해가면서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내고 계십니다.
부화뇌동이든지 부화지동이든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결국은 내게서 나온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에 감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원리의 공통점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덩달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덩달아 움직이는 것을 '덩달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고, '덩달다'라는 말은 '속내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라는 뜻으로 언뜻 보면 부화뇌동과 비슷한데, 이 '덩달다'라는 말이 생겨난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덩달아 한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겪는 일인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웃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웃으니 그냥 함께 웃는데 소외되기 싫어서이고, 다들 웃고 있는데 혼자 멀뚱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덩달아 웃습니다. 혹은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빨간불인데도 한 사람이 걸어가면 덩달아 걸어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옆 사람이 움직이니 같이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덩달아서 하는 것인데 '덩달다'라는 말의 '덩'은 '북소리'를 뜻하는 의성어로 북소리가 '덩덩덩'하고 울리잖아요. '달다'라는 것은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덩달다'라는 말은 춤판에서 북이 덩덩덩 울리면 우리 마음이 북소리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덩'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매달리면 따라서 몸도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소리를 듣다보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고, 서양에서도 흑인들의 레게음악 같이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음악을 듣다보면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덩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현장이고, 소리에 매달려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덩달아'라는 말의 의미는 부화뇌동의 원리를 따르는 선민이나, 부화지동의 원리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내가 매달려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주관적 소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 중에서 어떤 것에 내가 매달리느냐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부화뇌동이거나 부화지동입니다. 내 소신을 가지고 초지일관한다는 것은 이 죄악 된 세상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을 보고 감동해서 음악가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면 이 사람이 부화뇌동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돈을 잘 벌어야 한다.”라는 장단의 소리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니 덩달아 많이 벌어야 되는 줄로만 아는 것이고 그 장단에 맞추는 것으로 ‘덩달아’라는 말이 나온 현장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장단은, 우리나라의 타령이나 굿거리 같은 장단이 있습니다.
자진모리, 휘모리 같은 전통음악에서 ‘몰이’라는 것은 영어의 drive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진모리’는 자지러지게 몰아간다는 것이고, ‘휘모리’는 휘몰아치게 몰아간다는 뜻으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에 매달려서 몰려가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장단은 아~리~랑, 아~리~랑과 같이 다 삼박자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음악은 두박자로 되어 있고, 서양음악은 사박자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느 장단의 어느 소리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덩달아 하게 되는 춤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너울거리고 출렁거리는 모습의 춤사위가 다른 음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음악에 맞추면 딱딱 끊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덩실거리고 너울거리고 능청거리는 삼박자에서 나오는 춤사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의 ‘장단 맞춰 놀기와 놀아나기’가 무슨 뜻일까를 알아봅니다.
어느 장단에 내 마음을 매다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논다’는 것은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낸다는 뜻이고 ‘놀아난다.’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이 헛된 행동만 하는 것으로 이용당하고 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장단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장단에 맞춰서 즐겁게 노는 것이냐 아니면 장단에 맞춰서 놀아나는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화뇌동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우렛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매달아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 노는 것이 되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부화지동하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또 반드시 우리 마음에 후회가 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놀지 않고 세상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 모든 인류의 후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놀아났다”라고 축약할 수 있는데 “내가 놀아났고, 내가 이용당했고, 내가 헛된 짓거리를 하며 평생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우렛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매달고 덩달아 춤을 춘 사람은 그 즐거움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 된 하늘나라에서 계속 춤추며 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부화지동한 사람들은 자기가 놀아났음을 후회하며 그 마음이 극대화되

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화지동의 세상의 소리로, 이 소리에 마음을 매달고 평생을 이 소리를 따라 덩달아 춤을 추며 산 것은 이 세상의 장단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똑같이 덩달아 움직이지만 세상의 장단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장단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매달려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조차도 세상의 장단에 맞춰 놀아나고 있을 수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소리가 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들에 내 마음을 매달고 놀아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기도하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힙합의 리듬이 가득 찬 방에서 내가 아리랑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헤드폰을 끼고 힙합의 소리를 막고 아리랑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 작용이 있지 않으면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고도 기가 막힌 본문으로 마치 출애굽기 안에 있는 로마서 같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라고 하십니다.
대체 ‘사자’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 사자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21절에 보면 그 사자가 “사유하심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쥐고 계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이제까지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직접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사자를 앞서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하는 일은 선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인 복지입니다.
이 복지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며 노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장단에 춤 출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목소리입니다.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내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될지라’라고 하시므로 우

리는 놀 수 있게 되고 놀 수 있는 장소도 다 예비해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추며 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민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대적이 되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맞서시기 때문에 나는 놀 수 있는 것이고, 노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놀라고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직업은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있을 곳을 먼저 만드셨고 그곳에서 놀면 되는 것으로 아담의 직업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일 예비하신 곳에서 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덩달아 춤추면 되는 것인데, 아담의 죄 이후로는 세상의 장단을 듣고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이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장단을 따라서 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고민이 많아요. 본문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왕왕 놓칠 때가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권세가 있으시고 이름을 두셨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에서 더 확연해지는 것은 이름은 가리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름을 독차지 하신 분은 예수님뿐으로 요14: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이미 선민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표현되고 실현되느냐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뒤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곧바로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시작되는데, 성막을 짓는

그 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으로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로 성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내 마음을 매달아서 그 음성장단에 맞춰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네가 느끼는 장애가 나의 장애가 되고 나 하나님이 그 대적과 그 장애와 그 원수를 처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세상의 장단에 맞추며 놀아나고 싶어 합니다.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노는 것인 줄 알고 그래야 즐거운 줄 알고, 선악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소리에 매달려서 춤을 추는데 천만에요! 그것은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것이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들고 옮겨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든 레위인들이 제일 앞서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이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장단을 차단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고, 죽는 곳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세상의 장단 소리가 들리면, 이 장단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니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상의 장단이 들리면 이 장단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느껴질 때에 건강이 최고라는 세상의 장단 소리가 들려올 때에 매달리면 안 되고, 헤드폰을 끼듯이 다 막아버리는 사건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단에 대해서 콱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단이 돈 벌어야 산다는 소리가 헤비메탈이나 힙합 같이 굉장한 굉음으로 들립니다. 이 때 어떻게 하늘의 소리에 내 마음을 매달아서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꽉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에만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춤판이 벌어진 현장에 가면 기분이 나빠서 걱정을 하다가도 북소리 징소리를 듣다보면 서서히 음악이 내 마음에 전달되면서 걱정이 사라지고 음악에 매달리며 덩실덩실 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똑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 그 음성에 매달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의 나귀가 헤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장단에 따르면 원수의 나귀를 몰래 팔아먹든지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막으므로 하늘에서 들리는 “그 나귀를 네 원수인 나귀주인에게 가져다주어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로 삼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의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걱정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귀는 죽어버렸다고 헤드폰을 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따라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얼굴이 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고 있기 때문이고, 놀아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얼굴이 사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면 이제 죽는다.”라는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나며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 상황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장단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에도 있고 항상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비하신 에덴을 벗어나서 마귀의 장단과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예비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복지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출 수 없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복지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이냐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직업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놀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장단에 맞춰 놀아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자가 하시는 일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신 것으로 세상의 장단에 죽는 것이고, 세상의 장단을 듣지 않기 위해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오늘도 모든 세상의 장단을 듣고 그것에 매달려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장단에 귀 막고 오직 하늘의 장단에 따라 노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 예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 사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모든 역사가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성막을 통해서 예표로 선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막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세상의 장단에 대해서 죽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소리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장단 음성에 맞춰서 춤을 추며 놀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놀아나는 삶을 중단하는 것이고, 놀 수 있는 삶으로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놀아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장단에 맞춰 정말 즐겁게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십자가만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